必환경 시대… '녹색불교' 만들기 나선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 캠페인 본격 전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인해 '필환경'이 새로운 시대 조류로 부각되고 있다. 1회용품을 최대한 지양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과 동물권 보호를 위한 '비거니즘'은 이를 잘 보여주는 운동들이다. 생명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계에서도 '그린 부디즘'을 위한 운동이 본격화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5일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가 제시한 '녹색불교 만들기' 캠페인은 △녹색사찰 발굴 및 협약 △환경법회 및 교육 △버드나무 방생법회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다이어트 △사찰 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세부 사업으로 진행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부터 불교환경연대가 시행 중인 녹색사찰 발굴·협약 사업이다. 현재 6호 사찰까지 협약이 진행된 녹색사찰은 사찰 내 1회용품, 플라스틱 제품을 지양하고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모범적인 친환경 실천 도량을 발굴·협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중으로 녹색사찰을 20곳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녹색사찰을 인증하는 '에코 템플' 현판을 협약 사찰에서 제공하고 '녹색사찰'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6월 중

지난해 시작한 녹색사찰 확대
1회용품·플라스틱 안쓰기 유도
녹색사찰 선행 사례 발굴 계획
19일 '생태 방생' 주제 세미나

2곳의 사찰 협약이 예정돼 있다. 주위 스님들에게 녹색사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만큼 더 많은 사찰들의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가 전개할 계획인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녹색사찰과 불교 만들기에 밀접히 연결돼 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는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주영 사무처장, 상임대표 법만 스님, 유정길 운영위원장.

는 △사찰서 우산 비닐 사용 않기 △사찰 행사서 비닐, 1회용기 사용 않기 △신도들에게 텀블러 사용 권장 등을 유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 사무처장은 "녹색사찰 중에는 회수용 다회용기를 배치해 보증금을 받고 다회용기에 떡과 과일을 담아주고, 용기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면서 "이 같은 선례를 녹색사찰 단체 채팅방에 소개하면 다른 사찰들도 벤치마킹하게 된다. 녹색사찰과 연계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방생 모델로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하고 있는 버드나무 방생 법회도 주목할 만하다. 버드나무는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고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교환경연대는 여주 신륵사에 버드나무 묘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생법회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분양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역시 4대강 수질 정화를 위한 자체 방생법회를 정기적으로 봉행 중이다. 올해에는 오는 6월 29일(한강), 9월 28일(영산강), 10월 12일(낙동강), 10월 26일(금강)에서 버드나무 방생법회를 연다.

또한 불교환경연대는 '녹색불교 아카데미' 등을 통해 불자들에게 환경 현안을 알리는 특강과 법회가 사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찰 중심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사찰 숲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 대형사찰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중소사찰을 중심으로 녹색불교 만들기를 전개하려 한다"면서 "점에서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들고, 선을 연결해 면을 만들어 '녹색불교'라는 인드라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이제는 환경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감시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부처님의 생명평화 사상에 대해 일반 대중이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녹색불교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생명살림을 위한 생태적 방생문화를 위해'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방생 문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 연구가 소개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 인성프로그램 공모

6월 14일까지 접수, 청소년 수행법 주제

불교수행법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조계종 포교원 인증 인성 프로그램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 주제는 불교수행법을 활용한 '언어와 평화를 바탕으로 한 소통'으로, 불교수행법인 염불과 참선, 지계, 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찰과 단체, 학교,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2개 이상의 수행법도 포함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14일까지 공모신청서와 프로그램 지침서, 실제 운영에 쓰일 교재를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포교원 인증 인성 프로그램 공모는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금강선원 '청소년 십분 집중명상' 등 총 16개 프로그램이 인증됐다. 우수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포교원 발간 청소년인성 인증 프로그램 가이드북 게재, 지침서 발간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문체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노덕현 기자

공불련, "세상 지키는 부처님 불빛 되길"

제27차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


공무원 불자들이 범어사에서 제20차 합동수계법회를 열었다.

한국공무원불자들이 부산 범어사를 순례 방문하고 합동수계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불자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한 불빛과 관세음보살이 될 것을 서원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6월 1~2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제27차 성지순례 및 제20차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입재법회 △쿠무다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참선 정진 △예불 △걷기명상 △수계법회 등이 진행됐다.

입재식에는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주지 경선 스님과 각 기관 대표 불자공무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김상규 회장은 "세상이 어려울수록 공무원들이 세상을 지키는 불빛이 되어야 한다"며 "불심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보호자, 관세음보살이 되길 바란다. 오늘 범어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로 사회를 넉넉하게 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년포교 희망'…김해 불교학생단 창단

6월 1일 바라밀선원서 '마음쉬는곳'으로 명명

청년 포교 중흥의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에서도 자발적인 불교학생봉사단이 창립됐다.

김해 불교학생봉사단 '마음쉬는곳'(단장 엄본웅, 김해 경원고 2학년)은 6월 1일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태감)에서 봉사단 발대식을 봉행했다.

김해 불교학생봉사단은 자발적인 불교학생들의 봉사단이다. 지도법사 태감 스님(바라밀선원 주지)과 엄본웅 단장은 불교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묶는 단체 필요성을 느껴 이번 봉사단 창립을 주도하게 됐다. 김해 불교학생봉사단에는 약 30여 불자 청소년들이 이름을 올렸다.

자발적인 창단에 지역 불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국대 재학 시절 봉화 정토원 창립이란 자발적 불자 청년운동을 펼친 선진규 봉화 정토원장은 발대식 축사를 직접 맡아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법사 태감 스님과 불자청소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선진규 원장은 "불교계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미약함에도 이렇게 스스로 앞장서 불교 학생봉사단을 결성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김해에 있는 선배 불자로서 불교의 미래가 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엄본웅 단장은 "바라밀선원 주지이신 태감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으시고, 전남대 불교학생회 측에서 마음쉬는곳이란 이름도 함께 쓸 수 있게 해주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학업과 불자로서의 소양도 갖출 수 있는 불교청소년봉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영 학생(김해 경원고 1학년)은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스님과의 상담 등을 통해 마음 치유를 받고 싶다. 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학업과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청 99주년 기념 '통일' 청년대회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제38차 전국불교청년대회

2020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가 6월 22~23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창립 99주년 기념 제38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통하였느냐 일어나는 청년불자여!'를 주제로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불청대회는 임진각에서 도라산전망대까지 DMZ평화통일 순례가 진행된다.

또 통일 기원 대동한마당도 열려 통일과 관련된 노래와 율동 배우기, 전국 법우들을 상찬하는 불청대회 시상식도 진행된다.

대불청 측은 "창립 99주년을 기념해 대불청 회원들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활동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만해 스님의 시대정신을 재정립하고 큰 뜻을 이 시대에 회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38-1920

노덕현 기자

